




**GYEONGGI
ARTS
CENTER**

아트플러스 회원 모집

경기도립극단 | 경기도립무용단 | 경기도립국악단 |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기획공연

Art +

-  **회원구분** 아트플러스 회원 (3만원)
-  **회원혜택** 후원예술단체 정기·상설공연 초대권 제공 (연 2회 4매)
모든 예술단체 정기·상설공연 및 전당 기획공연 티켓 구매시 공연별 20~50% 할인
주차비 면제(공연관람시)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
-  **가입문의** Tel. 031-230-3246 www.ggac.or.kr



이제 가을만남

11 2010 November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마음
가
도미부인!



 **경기도문화의전당**
GYEONGGI ARTS CENTER

www.ggac.or.kr

COVER STORY 경기도립무용단 제33회 정기공연 〈도미부인〉 PREVIEW 파리챔버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 시트콤뮤지컬 〈KISS & MAKE UP〉 · 경기도립국악단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콘서트·수험생을 위한 공연 〈브레이크아웃〉 · 경기도국악당 상설국악인형극 〈아기데지 꿈꿈이〉 REVIEW 제6회 즐겨라 뮤지컬 페스티벌

P A R I S

파리챔버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2010년 11월 3일(수) 7:30 PM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C H A M B E R



O R C H E S T R A

티켓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티켓할인 : 50% :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동반 1인) / 40% : 아트플러스 회원, H-Plus 카드
티켓예매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인포살 031-230-3440~2 www.ggac.or.kr

경기도국악당 가족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엄마 아바라 전통문화 나들이

KOREAN TRADITIONAL CULTURE PROGRAM



일 시 매월 **첫번째** 일요일 오전 10:30~오후 14:30

장 소 **경기도국악당**

PROGRAM

10:30~11:10
별주부와 떠나는 소리여행
11:10~12:00
교육과 체험이 만난 국악공연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덩더쿵 열쑈~ 신나는 마당
14:00~14:30
나들이 이벤트

주 최 (재)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당

관람료 어른 10,000원 / 어린이 7,000원
65세 이상, 유공자, 장애인(동반 1인) 50%할인, 20인 이상 단체할인 (어른 8천원, 어린이 6천원)

예 매 인터파크 1544-2344 www.ticket.interpark.com

문의 문화교육팀 031-289-6435 www.ggad.or.kr

예술과만남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10 November

예술과만남 통권 제75호

발행인 조재현
편집인 손혜리
편집자문 이건왕
편집장 조경호
기획·편집 임선미
사진 이은주
발행처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
T.031-230-3200 F.031-230-3248
디자인·제작 온누리기획

08



10



12



11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10 November

C O N T E N T S

COVER STORY 08 경기도립무용단 제33회 정기공연 〈도미부인〉

PREVIEW 10 파리챔버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12 시트콤뮤지컬 〈KISS & MAKE UP〉
14 경기도립국악단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콘서트
16 수험생을 위한 공연 〈브레이크아웃〉
18 경기도국악당 상설국악인형극 〈아기돼지 꼬뽀이〉

MEMBERSHIP 20 경기도문화의전당 11월 공연 할인안내
21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 모집안내

기획 22 신임이사와의 만남 〈송승환 이사 편〉

REVIEW 24 제6회 즐겨라 뮤지컬 페스티벌
26 재즈 싱어소라이터 웅산 콘서트
28 경기필하모닉 제118회 정기연주회

문화복지 30 모세혈관문화운동 〈도립예술단 장터 공연〉

대관공연 32 15주년 기념 2010 컬투 쇼_수원공연
33 뮤지컬 〈넌센스〉
문수연의 신 바람난 거문고

GGAC NEWS 34 경기예술멘토프로그램 발표회
경기도국악당 제8회 가족음악회

GGAC 오시는 길 35 경기도문화의전당 / 경기도국악당

14



16



18



2010 11

경기도문화의전당 11월공연일정

GYEONGGI ARTS
C E N T E R
C A L E N D E R

대 공연장
소 공연장
경기도국악당
아외공연장
대전시장
소전시장
컨벤션센터

※공연일시가 변동되거나 공연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gac.or.kr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어린이점점기 컨퍼런스 08:00 / 02-541-0080	- 장애인과 함께하는 수원시어머니 합창단 19:30 / 010-3275-3036 3테너 콘서트 20:00 / 010-9140-2131		- 파라렘버오케스트라 초창연주회 19:30 / 031-230-3265 - 메타니티 스쿨 14:00 / 011-707-9180 - 국악아동극 '하기돼지 품품이' 11:00 / 031-289-6424	- 해병대군악대 정기연주회 19:30 / 031-8012-2861 - 문수연의 신비람 거문고 19:30 / 010-2253-0402 - 뉴타운사업 주민토론회 13:00 / 031-8008-5513 - 아름다운 동행전 019-255-8744	- 제84회 점자의 날 기념식 10:00 / 031-242-6101 - 경기도 서예대전 초대작가전 011-287-3900 - 아름다운 동행전 019-255-8744	- 컬투쇼 15:00, 19:00 / 010-728-4248 - 정글로 간 백설공주 12:00, 14:00, 16:00 - 경기도 서예대전 초대작가전 011-287-3900 - 아름다운 동행전 019-255-8744
7	8	9		10	11	12	13
- 경기팝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 010-2608-4604 - 가을밤의 낭만콘서트 18:00 / 010-8557-6646 - 경기도 서예대전 초대작가전 011-287-3900 - 아름다운 동행전 019-255-8744 - 엄마아빠랑 전통문화나들이 10:30 / 031-289-6435	- 수원지역 관현악 불우이웃돕기 콘서트 19:30 / 010-4738-6366 - 경기심포니커 정기연주회 19:30 / 011-238-8436 - 공무원 연금제도 설명회 13:00 / 02-594-1195 - 경기도 서예대전 초대작가전 011-287-3900 - 아름다운 동행전 019-255-8744	- 말레니엄 플루트 오케스트라 19:30 / 010-3280-3256 - 하이엔드 중창단 정기연주회 19:30 / 016-357-8125 - 아름다운 동행전 019-255-8744 - 국악아동극 '하기돼지 품품이' 11:00 / 031-289-6424			- 카지흐스탄 전통민속공연 19:30 / 031-8008-2760 -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 14:00 / 031-02-2025-3820	- 서예전시회 '정목회' 010-9480-5937 - 수원화성사진클럽 사진전시회 010-5330-9329	- 뮤지컬 '넌센스' 16:00, 19:30 / 010-4148-3309 - 키스 앤 메이크업 15:00, 18:00 / 031-230-3268 - 아주대 경영대학원 MT 행사 17:00 / 011-1715-5450 - 서예전시회 '정목회' 010-9480-5937 - 수원화성사진클럽 사진전시회 010-5330-9329
14	15	16		17	18	19	20
- 뮤지컬 '넌센스' 16:00, 19:30 / 010-4148-3309 - 키스 앤 메이크업 17:00 / 031-230-3268 - 서예전시회 '정목회' 010-9480-5937 - 수원화성사진클럽 사진전시회 010-5330-9329	- 수원시립합창단 130회 정기연주회 19:30 / 010-4123-2579 - 서예전시회 '정목회' 010-9480-5937 - 수원화성사진클럽 사진전시회 010-5330-9329	- 중앙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19:30 / 016-737-8230 - 서예전시회 '정목회' 010-9480-5937 - 수원화성사진클럽 사진전시회 010-5330-9329		- 한여름밤의 꿈 9:30, 11:00, 13:30 / 011-546-1384 2010 신인음악회 19:30 / 011-301-2569 - 국악아동극 '하기돼지 품품이' 11:00 / 031-289-6424	- 한여름밤의 꿈 9:30, 11:00, 13:30 / 011-546-1384 - 수원여대 아동무용과 작품전 19:00 / 011-717-9292 - 제46회 경기건축대전 접수 및 심사 011-753-8636	한여름밤의 꿈 9:30, 11:00, 13:30 / 011-546-1384	- 수원기독남성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 19:30 / 010-9166-2880 - 멘토 발표회 17:00 / 031-230-3276 - 제46회 경기건축대전 011-753-8636 - 천향연목회 하반기 정기 교외전시회 010-8872-4645 - 국악단 토요일회 15:30 / 031-289-6443
21	22	23		24	25	26	27
- 카르디아스 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011-442-9223 - 수원남성합창단 정기발표회 20:00 / 010-4927-3478 - 제46회 경기건축대전 011-753-8636 - 천향연목회 하반기 정기 교외전시회 010-8872-4645	- 코람데오 남성중창단 정기공연 19:30 / 011-745-4504 - 제46회 경기건축대전 011-753-8636 - 천향연목회 하반기 정기 교외전시회 010-8872-4645	- 레이디스 하모니 합창단 19:30 / 010-4740-5156 - 제46회 경기건축대전 011-753-8636 - 천향연목회 하반기 정기 교외전시회 010-8872-4645		- 수원 사계 양상봉 연주회 19:30 / 010-2511-2731 - 제46회 경기건축대전 011-753-8636 - 천향연목회 하반기 정기 교외전시회 010-8872-4645 - 국악아동극 '하기돼지 품품이' 11:00 / 031-289-6424	클래식 음악감상회 10:00 / 031-230-3264	- 무용단 정기공연 '도미부인' 19:30 / 031-230-3279 - 송혜림이집 학습발표회 17:00 / 018-372-9575 - 수원여대 아동미술과 09학번 졸업전 010-3787-8187	- 무용단 정기공연 '도미부인' 19:30 / 031-230-3279 - 수원여대 아동미술과 09학번 졸업전 010-3787-8187 - 박혜림 개인전 019-207-0900
28	29	30					
2010 향토음악제 10:00 / 031-230-3264 - 수원여대 아동미술과 09학번 졸업전 010-3787-8187 - 박혜림 개인전 019-207-0900	- 수원 여성합창단 18회 정기연주회 19:30 / 010-8733-1064 - 수원여대 아동미술과 09학번 졸업전 010-3787-8187 - 박혜림 개인전 019-207-0900	- 수원여대 아동미술과 09학번 졸업전 010-3787-8187 - 박혜림 개인전 019-207-0900					

Cover Story

경기도립무용단 제33회 정기공연 <도미부인>

경기도립무용단 제33회 정기공연

1500년 전
백제의 “도미와 아랑”
그리고 Love story...

2010년
경기도문화의전당 무대에서
화려하게 재현되다.!!!

Info

공연일정 2010. 11. 26(금) 19:30
11. 27(토) 17:00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총감독 조흥동
연출 김효경
안무 김정학
음악 홍동기, 계성원
입장연령 6세 이상
티켓가격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티켓예매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인포샵 031-230-3440~2
www.ggac.or.kr

경기도립무용단 제33회 정기공연 <도미부인>

감각적인 춤사위로

관객에게 극적인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

국내 최 정상의 스태프가 참여하는 경기도립무용단 제33회 정기공연 <도미부인>이 공연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작품은 지난 1994년 ‘올해의 좋은 연출가 상’을 수상과 더불어 연극, 뮤지컬, 오페라등 수많은 무대에서 빼어난 연출력을 인정받아 온 서울예술대학 김효경 교수와 현재 한국무용계에서 가장 많은 춤사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적 미학’, ‘관객을 압도하는 빠른구성’, ‘뛰어난 비주얼’로 그동안 <꿈, 꿈이었으니>, <황진이> 그리고 최근 작품 <태권무무 달하>까지 수많은 대작을 안무한 조흥동 예술단장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공연의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도미설화’에서 그 소재를 찾았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일반적인 문법, 화법을 그저 또 한번 전달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스태프와의 활발한 소통,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여 완성된 장치와 구성 등을 적극 활용하고 감각적인 춤사위로 관객에게 극적인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미부인>은 <춘향전>, <놀부전>, <심청전> 등 기존에 구전되던 이야기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먼저 해피엔딩이 아닌 것이 그렇고 일반적인 능력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계루왕의 욕심많은 이기적인 권력자의 횡포가 드러나는 사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역사적인 관점이 아닌 개인사를 무대에 펼쳐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감독인 동시에 안무와 구성을 총괄 지휘한 조흥동 예술단장이 이미 국립무용단 재직시절 주역으로 출연했었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다. 전작 <태권무무 달하>에서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던 ‘이영진’, ‘이동준’, ‘오지혜’, ‘박정미’ 단원의 기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공연장을 찾아야 하는 이유로 모자람이 없을 듯하다.

글 | 채명신(경기도립무용단 기획담당)

Preview

파리챔버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파리챔버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PARIS CHAMBER ORCHESTRA

예술의 나라 프랑스, 낭만과 자유가 넘치는 도시 파리에서 온 챔버오케스트라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초청공연을 갖는다. 프랑스 예술전통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으로 준비된 이번 공연은 프랑스적인 문화풍토와 전통을 바탕으로 자국 음악인들에 의해 발달해 온 음악이기에 문화적 색채가 강하다. 파리챔버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통해 국내 공연이 드물었던 프랑스스타일의 연주를 맛볼 수 있는 색다른 기회라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진다.



Info

공연일정 2010. 11. 3(수) 19:30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출연 파리챔버오케스트라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가
티켓가격 R석 3만원 / S석 1만원
A석 1만원 / 학생 5천원
티켓예매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인포샵 031-230-3440~2 www.ggac.or.kr

파리챔버오케스트라

파리챔버오케스트라는 솔리스트, 챔버 연주자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색깔을 지니고 있고 단원들 간에 형성된 공감대와 공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열정이 높아 해외 공연에서 프랑스스타일의 챔버오케스트라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막상스 라리(Maxence Lariou), 모리스 안드레(Maurice Andre)와 클로디 아리마니(Claudi Arimany)와 같은 독주 연주자와 함께 프랑스 국내공연과 해외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초청공연에는 지오바니니, 생상, 모리스, 하이든 곡을 연주하는데 프랑스의 작곡가 생상스가 1863에 작곡하여 사라사테의 독주로 초연된 'Introduction & Rondo Capriccioso Op.28' 과 젊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살롱 등에서 자주 연주되는 것이 싫어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않았다는 'Pavane for a Dead Princess' 등이 연주된다.

◆ 글 | 김형성 (공연기획팀)

Program

지오바니니 바티스타 페르고레스 올림피아드
Giovanni Battista Pergolesi Olimpiade
I. Allegro Assai E Spiritoso (빠른 빠르고 경쾌하게)
II. Andante Ma Poco / Allegro Vivace (느린 느리게)
III. Allegro Vivace (빠른 빠르하게)
까밀 생상 사라반데 & 리고돈 Op. 93
Camille Saint-Saens Sarabande & Rigaudon Op. 93
모리스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Maurice Ravel Pavane for a Dead Princess
장마리 르끌레르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가단조 Op. 7 No.5
Jean-Marie Leclair Concerto for violin a minor Op. 7 No.5
I. Vivace (빠른 빠르하게)
II. Largo (느리고 묵중하게)
III. Allegro Assai (빠른 빠르하게)
(Soloist : Crtomir Siskovic)
까밀 생상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Op. 28
Camille Saint-Saens Introduction and Rondo Capriccioso, Op. 28
Andante - Allegro ma non troppo (느리게- 과하지 않게 빠르하게)
(Soloist : Marc Benzekri)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교향곡 no.43 "수성"
Franz Joseph Haydn Symphony no.43 in E Major "Mercury"
I. Allegro (빠르게)
II. Adagio (매우 느리게)
III. Menuetto (민중악)
IV. Allegro(Finale) (빠르게)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휘 홀스트 슝 Horst Sohm, Conductor

Horst Sohm은 독일생으로 음악공부는 4살부터 시작하였다. 오르간과 기타보다 피아노를 먼저 배웠으며 지휘를 공부하는 동안 음악이론, 클래식 기타, 피아노, 오보에도 수학하였다. 초현실주의 화가인 Salvador Dalí를 위해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의 연주에 대해 "Sohm은 연주만 하는게 아니라 그의 음악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약력

- 1979년 파리 콘서트비토리로부터 '최고의 상'을 수상
- Hamburg, Berlin, Paris, Innsbruck, Grec-Barcelona, Santander Festival, Palencia, de Barrameda, Cadiz, Schleswig-Holstein Festival 등 유명 국제페스티벌 지휘자
- 1990년 프랑스 스트라스불 유럽의회에서 '영광의 회원'으로 칭호 얻음
-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게임 개막식 'Concerto Emp'ries'E.Rincon의 한정곡' 초연
- 동유럽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및 바흐, 헨델, 로스니, 차이코프스키 등의 음반 출시

Preview

시트콤뮤지컬 <KISS & MAKE UP>

Kiss & Make Up

키스앤메이크업

결혼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싱글들이여!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다!

Info

공연일정 2010. 11. 13(토) 15:00 / 18:00
11. 14(일) 17:00 (총 3회)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출연 박해미, 김도신, 최오식, 임천석

티켓가격 R석 3만원 / S석 2만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50%, 아트플러스회원 20%
20인 이상 단체 20%, I-Plus 카드 20%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가

티켓예매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인포샵 031-230-3440~2 www.ggac.or.kr



시놉시스

여기 한 때는 잘 살았지만 망해서 '빚'만 남아 '집' 하나 건져보자고 위장이혼을 한 부부가 있다. 하지만 이 부부의 위장이혼은 진짜이혼 위기에 놓인다. 이혼한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버린 것이다.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사람은 이들의 위장이혼을 입증해 빚을 받아내야 하는 심부름센터의 전설적 인물 베드로!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들에게 접근한다. 이 부부의 사랑을 입증해야만 자신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정말 다른 남자와 결혼이라도 한다면 자신의 명예에 큰일이다. 그래서 남편을 도와 이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아내 얘기를 듣다보면 남편이 죽일 놈이다. 부부 사이에 끼어서 열렬결혼 신부가 되어 이들의 고해성사를 듣기도 하지만, 부부는 이미 서로의 몸과 마음을 활취고, 찢고, 상처를 내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 더군다나 아내에게 생긴 새 애인이러니! 남편은 전 남편 주재에 불륜이라며 소동을 벌이고, 아내는 그걸 말리고, 싸우고, 욕하고, 결국 짐을 싣는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의 잘생긴 애인이 이들 앞에 나타나는 데... 내숭 없이 싸우고 내숭 없이 사랑하는 이들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

결혼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싱글들이여!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 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고자하는 한, 사랑과의 전쟁은 계속된다!
결혼을 해도 사랑에 애걸복걸하는 보통남자와 보통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키스 앤 메이크업>!

뮤지컬 배우 박해미 주연의 시트콤뮤지컬 <키스 앤 메이크업> 공연이 오는 11월 13일(토)과 14일(일) 양일간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키스 앤 메이크업>은 위장이혼했던 한 부부의 화해하는 과정을 그린 코믹한내용의 시트콤 뮤지컬로 올 상반기대화로에서 상설공연한 작품이다.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자살률과 이혼율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는 뉴스에서만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하기 때문이다.

여기, '돈' 때문에 위장이혼한 부부가 있다. 부부 두 쌍 가운데 한 쌍은 이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위장이혼은 어쩌면 '아직은 사랑한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사랑의 증거를 찾아 떠나려 한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이 있기는 한 걸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지금 고해성사를 한다면 한사람만 평생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에의문을 더해 그 속에 해답이 뮤지컬 <키스 앤 메이크업> 안에 있다. 알 수 없는내일을 살고 있는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서로를 측은지심으로 한 번 '더' 사랑할 기회를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다. 상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글 | 김기현 (공연기획팀)



Preview

2010 토요일기획공연 경기도립국악단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콘서트



2010 토요일기획공연 경기도립국악단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콘서트

수험생과 함께하는 음악회 새로운 시작

경기도립국악단은 사랑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매달 색다른 테마와 대상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전통음악과 더불어 현대적 감각의 창작국악음악을 선보이는 토요일기획공연 '사랑나눔 콘서트'를 연간 진행한다.

이번 11월에는 18일 수능고사를 치른 고3 학생 및 겨울방학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일(토) 오후 3시30분, 경기도국악당에서 <2010 경기도립국악단 토요일기획공연 '수험생과 함께하는 음악회 새로운 시작'>을 개최한다. 첫 무대는 팝스양상블의 김권식 악장의 전자바이올린 협주곡 '고구려의 혼, 하바나 길라'의 신명나고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다. 다음으로 국악가요 '아름다운 나라', 제주민요 '너영나영'은 관현악과 노래를 통해 우리 음악을 더 친숙하고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어 나무로된 실로폰이라고 할 수 있는 목금으로 매우 빠른 템포로 리드미컬하게 종달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표현한 목금협주 '종달새'를 연주한다. 또 매달 테마에 맞춰 진행하는 사랑의 편지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의 감동있고 진심어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축제와 신명, 흥거움의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국악관현악과 풍물 '판놀음'을 통해 역동적이고 신명의 판으로 관객과 연주자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무대로 마무리된다. 이 공연을 통해 수험생으로서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고 새로운 대학생활을 활기차게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 | 조은희**(경기도립국악단 기획담당)



Info

공연일정 2010. 11. 20(토) 15:30
공연장소 경기도국악당
출연 경기도립국악단
티켓가격 일반 1만원 / 청소년 5천원 (합인적용 없음)
3인 이상 가족 동반시 5천원
65세 이상 노인·장애우 동반 1인 5천원
이트플러스회원 5천원
전통문화교육강좌 수강생·20인 이상 단체 7천원
신세계포인트카드 소지자 7천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가
티켓예매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경기도립국악단 기획실
031-289-6471~3 www.ggad.or.kr

공연내용

1. 고구려의 혼, 하바나길라

(전자바이올린/ 김권식, 일렉기타/ 서강철, 신디사이저/ 조성준, 드럼/ 최성태)

고구려의 혼 (작곡/ 홍동기)_ 동살풀이 장단을 바탕으로 타악기가 웅장한 스케일을 갖고 어우러짐으로서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고자 한 곡이다. 이 곡의 후반부는 서양의 리듬과 선율을 사용하여 국악과 대비되는 변화를 꾀하였다. 원래는 실내악곡으로 작곡된 곡이다. 요즘은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어 연주된다

하바나길라 (편곡/ 이준호)_ 이스라엘 민요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하바나 길라는 민속적인 춤과 장단 그리고 선율을 조화롭게 구성해 만든 곡으로 특히 바이올린과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들어 보는 맛이 새롭다.

2. 국악가요 '아름다운 나라' (노래/ 김정선)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라는 가사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를 아름다운 가사로 노래한 곡으로 웅장하고 장엄한 느낌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강산의 영상을 배경으로 관현악만 연주 된다.

3. 제주민요 '너영나영' (편곡/ 이등훈 노래/ 하지아)

제주민요 '너영나영'은 제주도 여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로 '제주도타령'이라고도 한다. 단순하고 신명나는 가락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너영나영'의 가사에는 사랑에 대한 마음, 한국 특유의 정이 묻어나는 곡이다. 재즈 풍으로 편곡을 하여 청중에게 좀 더 편하고 경쾌하게 다가가는 곡이다.

4. 목금협주 '종달새' (편곡/ 오혁 목금/ 윤은화)

이곡은 전체적으로 매우 빠른 템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16분 음표의 분할 박자가 대부분으로 타악기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 곡이다. 목금의 여러 가지 다양한 주법을 사용한 리드미컬한 곡으로 목금의 특유한 음색과도 잘 어우러져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달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목금으로 표현하여 한층 더 다양한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다.

5. 사랑의 편지

자신의 마음을 담은 사연을 소개하는 '사랑의 편지' 주변 이웃들의 진솔하고 풋풋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다.

6. 국악관현악과 풍물 '판놀음' (풍물/ 이부산, 이상관, 강호규, 박상덕)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봄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판을 벌이고, 가을은 수확의 기쁨을 신명으로 풀어내는 놀이문화를 가지고 있다. 들녘에서 들려오는 가을의 고즈넉한 소리에, 농민들은 한껏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기락과 장단에 어깨춤을 추게 된다. 이 곡은 신명나게 한판 벌리는 들판을 연상하며 '능계기락' 중에서 자진모리를 가지고 편곡된 곡이다.

Preview | 수험생을 위한 공연 <브레이크아웃>

Extreme Dance Comedy BREAK OUT

수험생을 위한 공연
브레이크아웃



Info

공연일정 2010. 11. 22(월) ~ 12. 14(화) 1030
공연장소 경기도국악당
공연시간 70분
티켓가격 6천원(청소년 단체에 한함)
단체예약문의 경기도국악당 기획운영팀 031-289-6421



경기도국악당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고입선발고사 등 각종 시험 준비로 지친 수험생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험생을 위한 공연-브레이크아웃」을 11월 22일부터 공연한다.

학교단위 단체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이번공연은 진학 준비기간의 여가시간을 활용하려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기말고사로 한껏 스트레스를 받았을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단체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공연이다.

‘브레이크아웃’은 전혀 죄수답지 않은 어설픈 다섯명의 죄수들이 꿈과 자유를 향해 탈옥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기상천외하고 유쾌한 좌충우돌 탈옥기를 비보이 댄스로 풀어낸 퍼포먼스이다.

길거리나 평범한 무대에서 봐도 흥겹고 짜릿한 스트리트 댄스와 사랑스런 캐릭터들이 펼쳐내는 코믹한 스토리를 가슴 뭉클하게 하는 연기로 표현하는 이 공연은 비보이와 비걸의 현란하고 신나는 익스트림 댄스의 볼거리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구성, 밀도 높은 코메디 연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청소년들을 열광하게 하는 춤과 무대를 압도하는 비트박스의 향연이 공연내내 무대에서 눈을 땔 수 없게 만들고 결국 그들과 교감하는 몸짓과 언어가 되어 지금 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짜릿한 감동과 열정을 느낄게 할 것이다.

◆ 글 | 최현희 (국악당 기획운영팀)



Preview | 경기도국악당 상설국악인형극 <아기돼지 꼬꼬이>

- ◆ 인터파크 단기간 예매순위 1위
- ◆ 공연관람후기 별 ★★★★★ 평점10점 기록
- ◆ 관객반응 최고의 어린이국악뮤지컬

2010 더욱 새로워진 국악인형극

아기돼지 꼬꼬이

Info
 공연일정 2010. 9. 1 ~ 11. 24 매주 수 11:00
 공연장소 경기도국악당
 출연 광대놀이 페이루
 연출 정준대 음악 오혁 광대놀이 페이루
 연주 경기도립국악단
 티켓가격 전석 1만원
 티켓예매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경기도국악당 기획운영팀 031-289-6427 www.ggad.or.kr

★특별 보너스★

하나! 관람 후 배우와 함께 사진촬영
 두울! 국악당 마당에서 민속놀이 체험
 세엿! 국악기 체험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연희와 동화가 만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볼거리를 선물할 어린이 국악아동극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민요와 장단, 그리고 탈춤, 꼭두각시놀음, 사자춤, 줄타기 등 다양하고 화려한 전통연희를 담았다. 신명나고 신기한 볼거리로 아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키워줄 것이다.

국악과 아동극의 신명나는 만남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예술적 감성을 개발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과 이해를 돕기 위해 국악과 아동극을 접목시킨 어린이 국악아동극을 기획하였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극적 움직임과 다양한 국악체험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친숙한 동화와 전통연희의 만남

어린이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화를 소재로 친숙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우리의 다양한 전통연희(전통소리, 전통기악, 탈춤, 꼭두각시놀음, 사자춤, 전통타악, 줄타기 등)을 이야기 속에 삽입하였다. 인형과 사자탈 등의 등장으로 색다르고 신기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라이브 국악연주로 극의 생동감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 글 | 황국재 (국악당 기획운영팀)

작품의도

어른들의 문화활동에 비해 어린이들의 문화생활은 TV 또는 게임에 한정되어 함께 어울리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며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음악을 알기도 전에 서양 음악을 먼저 접하기 때문에 국악은 낯설고 어려운 장르로 생각하지요. 이 작품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함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즐겁고 흥겨운지를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_ 광대놀이 페이루 정준대 대표

공연줄거리

어느 마을에 아기돼지 삼형제와 그들의 부모님이 살고 있었어요. 첫째 돼지는 언제나 무조건 새것만을 찾고 명품을 좋아하는 아이. 둘째 돼지는 잠이 많고 게으른 아이. 셋째 돼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이를 위해 양보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런 삼형제의 성격을 잘 아는 엄마 돼지는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직접 집을 짓고 잘 지내는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G G A C

MEMBERSHIP

● 경기도문화의전당 11월 공연 할인안내

기획 공연

파리 챔버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 일시 2010년 11월 3일(수) 19:30
-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Art +
회원 40% 할인

키스 앤 메이크업

- 일시 2010년 11월 13일(토) 15:00, 18:00 / 14일(토) 17:00
-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Art +
회원 20% 할인

4K 영상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감상회

- 일시 2010년 11월 25일(목) 10:00
-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Art +
회원 30% 할인

국악인형극 <아기돼지 꼬꼬이>

- 일시 2010년 11월 3일(목), 10일(목), 17일(목), 24일(목) 11:00
- 장소 경기도국악당

Art +
회원 20% 할인

예술단 공연

경기도립국악단 토요기획

- 일시 2010년 11월 20일(토) 15:30
- 장소 경기도국악당

Art +
회원 50% 할인

경기도립무용단 제33회 정기공연 <도미부인>

- 일시 2010년 11월 26일(금) 19:00 / 27일(토) 17:00
-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Art +
회원 50% 할인

대관 공연

2010 킬투쇼

- 일시 2010년 11월 6일(토) 15:00, 19:00
-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Art +
회원 10% 할인

뮤지컬 <년센스>

- 일시 2010년 11월 23일(토) 16:00, 19:30 / 24일(일) 14:00, 17:00
-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Art +
회원 15% 할인
1인 4매에 한함

G G A C

MEMBERSHIP

●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 모집안내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을 모집합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이 되시면 각 예술단 공연 초대권 및 할인의 혜택이 있으며 기타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되겠습니다.

◆ 회원 구분

아트플러스 회원 : 1구좌 (3만원) · 아트플러스 골드회원 : 100구좌 이상 (300만원)

◆ 회원 혜택

경기도립국단 · 경기도립무용단 · 경기도립국악단 · 경기필하모닉
후원예술단체 정기 · 상설공연 초대권 제공 (년 2회 4매)

경기도문화의전당 (리듬양상블 포함)

모든 예술단체 정기 · 상설공연 초대권 제공 (년 2회 4매)

공통혜택

모든 예술단체 정기 · 상설공연 및 전당 기획공연 티켓 구매시 공연별 20~50%할인
(공연당 4매) / 월간지 「예술과 만남」 우편발송 및 명단표기
개인회원 카드 발급 / 주차비 면제(공연관람시)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

◆ 회원기간 승인일로부터 1년

◆ 회원계좌 경기도문화의전당 농협 301-0041-4473-51

◆ 접수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문의전화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담당 Tel. 031-230-3246 Fax. 031-230-3275 www.ggac.or.kr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경기도문화의전당 (우)442-835

※ 아트플러스 회원 안내 및 기타 관련 모든 문의사항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담당에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기획 | 신임이사와의 만남 <송승환 이사 편>

공연계 최고의 히트작으로 꼽히는 작품 '난타'를 만든 중심에 배우이자 뛰어난 기획력을 가진 송승환 PMC 프리덕션 대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안다.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로, 기획자로 그만의 확고한 영역이 있지만, 최근에는 명지대 뮤지컬 학부 교수에 이어 성신여대 융합문화예술대학 학장을 맡는 등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신임이사와의 만남 <송승환 이사 편>
문화에서 찾는
행복한 삶의 가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의 가치를
문화에서
찾을 수 있도록
중요한 소명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 없이 대단한 열정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그야말로 멀티 플레이어이자 만능엔터테이너로 대활약을 하고 있는 송대표가 올 하반기 경기도 문화의전당의 새 이사진으로 영입되어 2년간 경기도문화의전당과도 깊은 인연을 맺게 됐다.

지난 10월 21일, 신임이사진의 첫 이사회로 열린 제32차 이사회가 끝난 직후 송승환 신임이사와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오랜 시간 무대와 브라운관을 통해 눈에 익숙해서였을까.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전달해 주는 부드러운 속에 그만의 뚜렷한 아우라 만큼은 누구와도 견줄 바 아니었다.

경기도와의 인연에 대해 묻자 큰 줄기로 세가지를 꼽았다.

“수년전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시절 모노드라마 ‘너에게 나를 보낸다’라는 작품을 소극장 무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예쁘고 아담한 극장이라는 깊은 인상이 남았지요” 지금은 내·외관으로 첨단 설비를 자랑하는 공연장이 많이 들어섰으나, 전당 무대에 섰던 그 첫 느낌을 놓치지 않고 전해줬다.

“또 뮤지컬학부 교수를 맡게 됐던 명지대가 경기 용인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도를 자주 오갔었죠” 지난 10월 10일 폐막한 ‘즐거라 뮤지컬 페스티벌’에도 명지대가 참여했고, 폐막식에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꺼이 참가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당일 축하에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문화예술을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했으면 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이번에 전당 이사를 맡게 된 것이 큰 줄기로 봤을때 세 번째 경기도와의 인연인데, 조재현이사장과는 워낙 오래전부터 알아온 선후배 사이고, 연극 에쿠우스에서 다이사트 역에 더블캐스팅이었지요.” 그런 인연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에 인구가 많아도 공연의 경우 서울 집중적이어서 경기도가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경기도내 민간과 관급 예술단체들도 도민들을 위한 창작품을 만들고, 또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도 있는 작품으로 정착하도록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직원들에게는 “최근들어 가치가 더 높아진 ‘문화’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자부심을 갖고 문화사업적인 측면에서 상품이 평생 머리와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의 가치를 문화에서 찾을 수 있도록 중요한 소명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멘트로 인터뷰를 마쳤고, 직원의 한사람으로 문화의 가치와 또 고객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 | 임선미(문화사업팀)**



Review

제6회 즐겨라 뮤지컬 페스티벌



뮤지컬 전공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즐거라 뮤지컬! Festival!!

지난 10월 보름동안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은 대학생들의 열정과 환희, 땀과 박수로 넘쳐났다. 한국대학뮤지컬교수협의회(회장 류태호)에 소속되어있는 회원 대학들이 참여하는 뮤지컬 축제인 제6회 즐겨라뮤지컬 페스티벌 덕분이었다. 경기도문화의전당과 한국대학뮤지컬교수협의회 공동 주최로 뮤지컬 학과(전공) 교수와 학생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본격적인 대학 문화콘텐츠 축제 프로그램인 <즐거라 뮤지컬 페스티벌>은 2005년 개최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뮤지컬을 전공하는 Pre-Professional들이 참여하는 뮤지컬 축제였다.

E N J O Y
M U S I C A L
F E S T I V A L



생동감 있는 뮤지컬, 관객이 참여하는 젊은 뮤지컬 Festiva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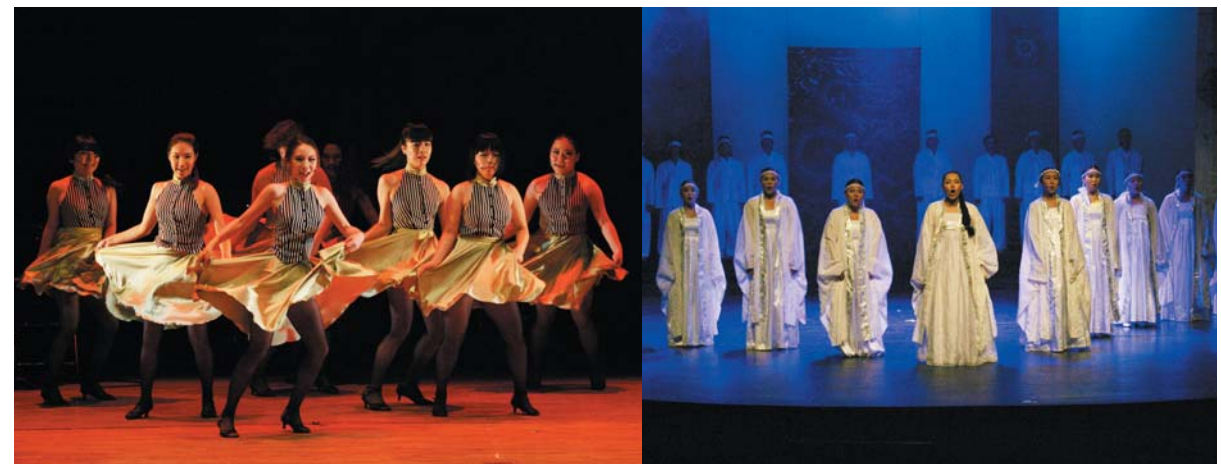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더욱 박력있는 무대를 준비한 8개 대학의 작품들이 올려졌다. 명지대의 유린타운(9.25)을 시작으로 청강대의 웨딩싱어(10.10)까지 공연 마다 젊은 뮤지컬 스타들의 열정이 묻어났다. 매일 소공연장 내부의 자유게시관에는 각 대학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넘쳐났고 관객들 또한 글을 남기며 이들을 격려하는 등 관객들과 함께 호흡 할 수 있는 뮤지컬 공연들로 이루어 졌다는 평가이다.

미래의 뮤지컬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의 요람 !!

이러한 뮤지컬 페스티벌은 미래 뮤지컬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발굴하고 교육시키는 무대임과 동시에 관객들과 호흡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장이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즐거라 뮤지컬 페스티벌>을 미래의 인재들을 성장시키는 훌륭한 콘텐츠로 성장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앞으로도 지원과 관심을 쏟을 예정이다.

하이라이트로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 폐막식(10.10)은 각 대학의 갈라콘서트와 인사들의 초청으로 더욱 값진 무대였다. 뮤지컬 갈라콘서트로 꾸며진 각 무대에는 참여학생 뿐만 아니라 야외 공연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특히 특별 게스트 초청된 뮤지컬 배우 이태원씨(현 명지대 교수)는 후배들에게 귀한 경험담과 이 분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전해 주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각 대학의 미래스타상 시상을 끝으로 진행된 뒤풀이 시간. 경기도문화의전당 조재현 이사장의 협찬으로 가득 메워진 음식과 함께 시작된 뒤풀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수고와 힘든 나날들을 서로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화합의 장이 만들어졌다. 모두가 헤어짐의 아쉬움 속에 내년을 기약한 이번 <즐거라 뮤지컬 페스티벌>이 앞으로도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관객, 뮤지컬 관련 종사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페스티벌로 성장되길 기대해 본다. ◆ 글 | 윤준오(공연기획팀)





재즈 싱어송라이터 웅산 콘서트 가을의 감성을 기분 좋게 터치한 시간

재즈의 감성은 가을과 맞닿아 있다. 가슴 속 묻어 두었던 오랜 추억과 순수한 감성을 스멀스멀 새어나오게 하는 힘이 묘하게 닮았다. 따라서 가을에 듣는 재즈는 더 깊고 멜랑콜리하다. 자칫 지나친 감정 몰입으로 고독한 뒷맛을 안겨 줄 수 있는 가을의 재즈를 유쾌하게 담은 공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일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재즈기수이자 싱어송라이터 웅산의 무대다. 재즈가 어느 정도 대중화됐음을 입증하듯 객석에 가득찬 관객들 앞으로 푸른빛 드레스를 입은 웅산이 등장했다.

로스판초스(Lospanchos)의 '퀸세라(Quien sera)'가 울려 퍼지고, 웅산 특유의 중저음의 농염한 보이스가 매력적인 손놀림과 하나 되며 순식간에 관객을 압도했다.

이번 공연의 테마는 '가을'. 가을에 어울리는 곡 위주로 선정해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속 재즈음악, 클래식한 느낌의 곡 등 재즈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색깔과 더불어 숙련된

테크닉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이어졌다.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명대사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번만 오는거요..."를 낭독하는 등 중간 중간 이어진 멘트와 친절한 곡 설명은 곡에 대한 몰입을 도왔다.



혹시라도 공연장의 이방인으로 있을 관객이 있을까봐 웅산은 '다같이 한 손을 내밀고,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를 외치며 스윙 리듬을 함께 타도록 유도하는 등 관객과의 교감을 이끌어 나갔다. 관객들은 가수의 마지막 한 소절, 숨소리까지 놓칠 세라 반주까지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서 박수 갈채를 보내는 수준 높은 매너를 뽐내는 것으로 화답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재즈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재즈 마니아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재즈의 다양하고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맛보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 1930년대의 디식, 스윙 재즈에서부터 보사노바, 펑키까지 올드&뉴의 음악 스타일이 레퍼토리로 꾸며졌다. 또 정통 재즈에 21세기의 모던한 편곡을 가미해 보다 다이내믹하면서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강렬하게 관객의 마음을 두드렸다.

세션팀의 즉흥연주가 정통 재즈의 진수를 보여줬다면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으로 구성된 브라스밴드는 익살스러운 모습과 다이내믹한 연주로 공연의 재미를 더했다.

세션팀 연주에 이어 캐주얼 미니원피스로 갈아입고 나온 웅산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빠른 곡으로 슬슬 열기를 끌어 올리더니 이어 애니 레녹스(Annie Lennox)의 '테이크 미 투 더

리버(Take me to the river)'로 모든 관객이 일어나 춤추며 환호하는

스탠드 콘서트장을 만들었다. 다른 공연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었지만 모두 일어나 노래를 주고 받으며 몸을 흔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감기에 걸려 목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열정을 다한 아름다운 가수와 그녀와 재즈를 사랑하는 관객의 호응이 함께해 더욱 빛났던 무대.

터질듯한 사운드와 가수의 얼굴 표정까지 읽으며 호흡할 수 있는 재즈 클럽이나 소극장 무대가 주는 전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서정적이고 깔끔한 무대로 가을의 감성을 기분 좋게 터치한 시간이었다.

재즈가 별거인가? "재즈를 잘 몰라도, 아직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음악을 즐기며 호흡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벌써 재즈 마니아가 되신 겁니다"란 웅산의 말처럼 정통, 퓨전 따질 것 없이 음악을 즐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글 | 오세진 (티브로드 작가)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힘

깊어가는 가을, 브람스와 쇼팽의 명곡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 열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18회 정기연주회의 주제는 '쇼팽, 브람스의 낭만적 색채'였다.

‘피아노의 시인’ 쇼팽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음악을 들을 기회가 다방면으로 열리고 있다.

폴란드 출신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쇼팽은 200여 곡에 이르는 작품을 통해 피아노를 한층 화려하고 매혹적인 악기로 재탄생시킨 주인공이다. 그는 살롱 음악에 머물던 녹턴(야상곡)을 한 차원 세련된 장르로 발전시키고, 폴란드 전통 춤곡인 마주르카를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하면, 프렐류드(전주곡)를 독립적으로 자리매김케 하는 등 시대를 앞선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슈만의 아내가 된 당대 인기 여성 피아니스트 ‘클라라’라는 여성을 평생 사모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죽어간 순정과 브람스. 이 가을 음악에 취해보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찰나에 경기필이 들려주는 쇼팽과 브람스는 아주 특별했다. 그리고 달콤했다. 쇼팽이 남긴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마단조’는 쇼팽이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낭만적이고 조용하며 반쯤 우울한 마음으로 즐기던 무수한 추억들을 상기시키는 장소를 바라보는 듯한 인상을 일으키게 했다”. 이번 연주회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탈리아의 신예 거장인 프란체스코 란칠로타가 지휘봉을 잡고, 2010년 퀴엘라자베스콩쿠르에서 5위에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한국의 차세대 비르투오소인 김태형의 피아노 협연무대였다. 이는 점이다.

특히 김태형의 피아노 협연은 이보다 더 감미롭고 섬세할 수 있을까? 김태형의 연주에 쇼팽이 환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브람스의 ‘교향곡 제3번 바장조’는 ‘영웅 교향곡’이라 불리울 만큼 투쟁적이고 힘찬 열정과 더불어 서정적인 면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연주곡을 감상할 수 있었다.

거기 에다 경기필 80여명 단원들의 연주는 단아했다. 그리고 파워풀했다.

현재 선장이 없이 경기필은 어떤 지휘자가 와도 어떤 협연자가 와도 ‘어울림’이 잘 되는 오케스트라였다. 그것이 바로 경기필의 파워가 아닐까 싶다. 글 | 강현숙 (인천일보 경기문화체육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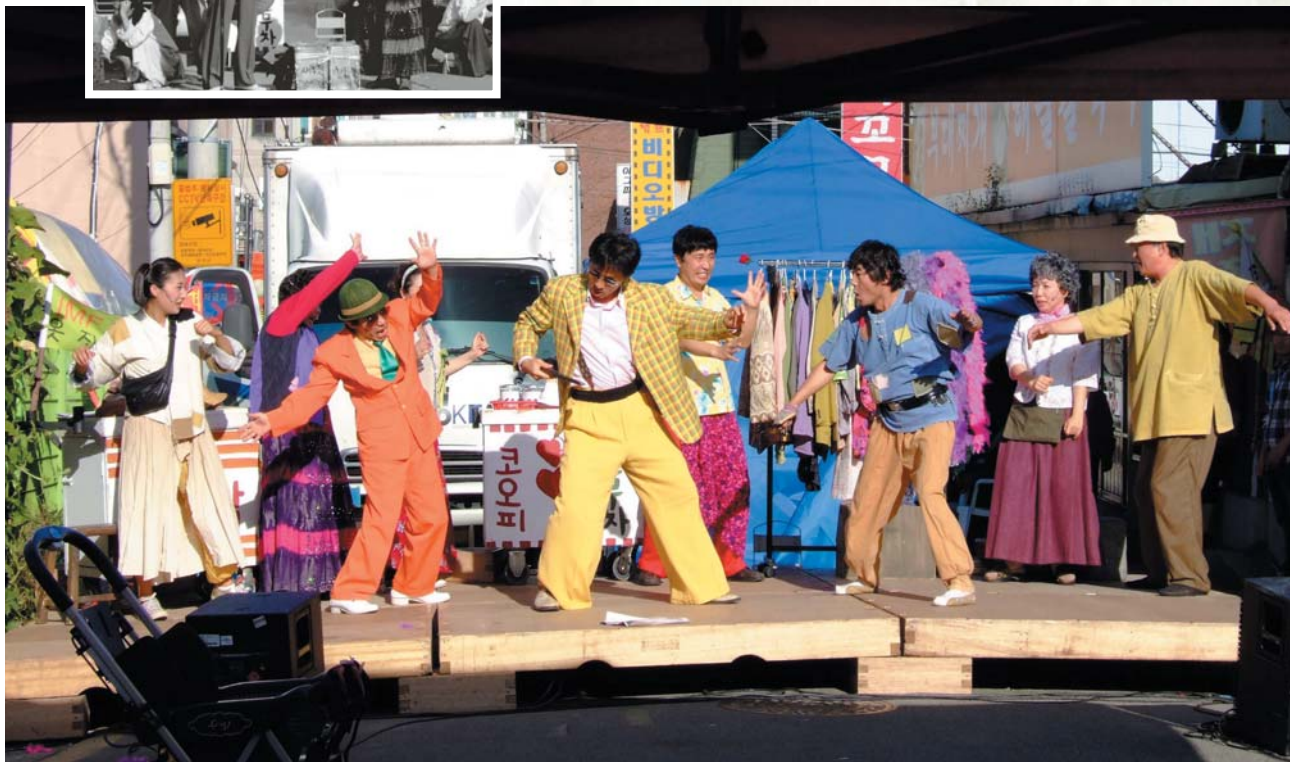


도립예술단 장터 공연_ 연천군 전곡2리 재래시장 편

경기도민들의 마음에
예술의 향기를

“여기서는 안 돼 자-쪽에 가서해요. 저쪽”

검게 그을린 구리빛 피부에 연세가 제법 있으실 것 같은 어르신이 나서서 현장을 진두지휘한다. 경기도문화의전당과 도립예술단이 문화소의 및 낙후지역 그리고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도립예술단의 공연을 곳곳에 선보이는데, 지난 10월 9일은 ‘도립예술단 장터 공연- 연천군 전곡2리 재래시장 편’을 진행했다.



이미 가을이 무르익었을 법한 10월임에도 불구하고 내리쬐는 태양은 한여름을 방불케 했고, 도립극단의 악극 레퍼토리 ‘사랑장터’를 위한 준비는 스태프들의 구슬땀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트럭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덧마루며 무대 셋업을 위한 장비들을 내리려는 찰나, 상인 대표격이면서 노인회장을 맡고 계신 어르신(2)로 공연장소를 변경하게 됐고, 그의 손가락이 바빠 질수록 새로 정해진 공연장소 앞쪽에 천막이 세워지는 등 움직임이 일사분란해 졌다. 기존에 군청 담당자와 사전조율을 거듭하며 세워둔 계획들은 변경됐고, 장소뿐 아니라 공연시간도 1시간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일은 흔한 일. 좌판을 깔아둔 상인들은 어쩌면 도립예술단의 호의에 고마움보다 생계유지에 방해를 받는다고 항의를 하는 일도 있다고 하니, 중심을 지키며 진심을 담아 현장에 문화예술을 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쉽지만은 않은 듯 했다.

그나마 이날은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한 경로잔치를 겸한 행사로, 연세가 70-80은 족히 돼 보이는 분들이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 거동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수가 모여 있었고 한 끼 식사를 나누고 즐거운 음악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셨다.

시장 측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길어지자, 자연스레 도립극단의 공연도 1시간 뒤로 연기된 것. 버젓한 공연장에서라면 공연시간이 바뀌는 것은 어렵없는 일이지만, 이곳은 말 그대로 초청자의 입장에서 공연을 시간마저도 좌우지 되는 등 변수가 매우 많았다.

공연을 위해 도립극단 배우들도 이미 도착해 있고, 전당 스태프들 역시 편도로 세시간은 족히 걸리는 장거리에서 공연을 준비해오느라 그 어느 때 보다 수고로움은 컸다.

재래시장공연은 그랬다. 탈의실이나 대기실은 천막으로 대신해야 했고, 배우와 관객의 거리가 가까워 배우들의 숨소리 까지 들리는 것은 물론, 배우의 공연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무대를 가로지르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비일비재 했지만 정감어린 풍경에 흥에 겨워하는 관객의 모습에서 오는 감격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

도였다. 귀에 익은 트롯이 흘러나오는 악극이 시작되자 흠뻑 젖어 있던 행인들이 삼삼오오 모이더니 어느덧 백여명은 족히 넘는 관객이 몰려 들었고 박수치고 웃고 햇빛만 겨우 가린 천막 아래서 벌어지는 진풍경에 진한 감동이 밀려들었다.

무엇보다, 여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공연을 치러내야 하는 도립극단의 수고로움에 더욱 고마울 따름이고 장소불문하고 분장, 대사, 표정연기까지 최선을 다해 공연을 마무리해준 도립극단원들에게 보내는 박수는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마음이 실렸다. 배우들도 그러했지만, 공연준비를 위해 뒤에서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흐르는 땀 그리고 열정과 노력으로 문화를 많이 접하지 못해온 경기도민들의 마음에 예술의 향기를 불어넣는다는 자부심에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고 큰 것인지를 다시한번 깨닫게 됐다.

글 | 임선미(문화사업팀)



GGAC 대관공연



15주년 기념 2010 컬투 쇼 - 수원공연-

15주년 컬투 쇼! 15배 강력해진 컬투가 돌아온다!

그 어느 해 보다 스팟타클하고,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된
울트라 초 강력 열라 재미있는 이시대 최고의 버라이어티 쇼!
15주년을 맞는 컬투가 그 이름만큼이나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온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컬투 쇼를 보면서 우리 마음껏 웃고 즐겨보자!
모든 것은 직접 확인하시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새로운 구성으로 맞아하게 될 볼맞이 15주년 컬투 쇼!

Chapter 1. 열라 웃간다.

Chapter 2. 열라 멋있다.

Chapter 3. 열라 잘한다.

개그, 노래, 연기, 춤, 마술 등 어느 하나도 놓칠 게 없는 컬투 쇼의 묘미는 바로
누가 뭐래도 그들은 가수라는 거다 (민가나 말가나 그들은 12장의 앨범을 냈다)
또한 올해 2월에 나오게 될 따끈따끈한 앨범까지!
컬투 만이 할 수 있는 연인들을 위한 무대 위의 특별한 이벤트,
패러디의 대 마왕 컬투만의 달콤살벌한 패러디. "아 컬투여, 그 끝은 어디인가요."
관객을 휘어잡는 짹 짜인 웃음 코드와 히트곡으로 당신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할 것이니, 컬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두르자!

“컬투 쇼”라 쓰고 “레전드”라 읽는다!

해마다 연간 예매율 1위를 자랑하며 공연 계의 레전드로 자리잡은 컬투 쇼!
컬투가 말하기를 “관객에게 축복을 주오니 다음 공연 때도 또 오라”
그리고 관객들은 그 약속을 매번 지켜 주니, 컬투쇼는 나날이 번창한다.
해마다 전국의 관객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앵콜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컬투!
많은 관객들이 컬투의 부름을 받고 공연장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리 알려드
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당신의 선택이 후회 없는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만 꼭 알려주고
싶다.

공연
정보

공연일시 2010년 11월 6일(토) 15:00, 19:00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티켓가격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주관 (주)한미기획

주최 SW엔터테인먼트

공연문의 1588-3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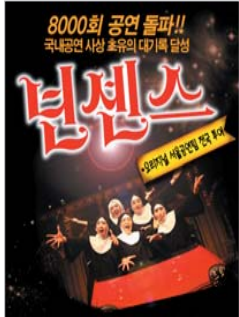


GGAC 대관공연



뮤지컬 <넌센스>

단 고진 원작의 미국 오프로드웨이 히트작뮤지컬 <넌
센스>는 1991년 6월 8일 초연 이후 세종문화회관 대공
연장, 호암아트홀, 연강홀을 비롯 대학로 창조아트센터
와 전국 각 지역을 돌며 2010년 현재까지 Open
Long~ Long Run~ 하며 현재까지도 국내 뮤지컬의
신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식중독으로 숨진 동료수녀
들의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라는 특별한 이유로
다섯 수녀들이 벌이는 포복절도할 개그와 풍치를 쏟아
내는 배꼽잡는 대번란 뮤지컬. 국내 코미디 뮤지컬 사상 최고의 히트작으로 한국 뮤지
컬사의 획을 그어 온 <넌센스>가 이번에도 더욱 더 활기차고 신바람 난 모습으로 이곳
수원에서 다시 한 번 막을 연다



문수연의 신 바람난 거문고



오는 11월 4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립국악단의 거문고 수석
문수연씨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소극장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거문고를 좀 더 친근히 느낄 수 있도록 피아노 그리고 기타가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로 마련된다. 때론 전통적 요소를 전혀
넣지 않은 곡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거문고 연주에
기타의 피크를 도입해보는 시도도 처음으로 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거문고와 고토(일본의 현악기)의 만남을 시도해
세계화의 길도 열고 있다. '문수연의 신 바람난 거문고 연주회'는 연주를 듣는 이로
하여금 평온과 감동·즐거움의 '신바람' 이 될 것이다.

공연
정보

공연일시 2010년 11월 13(토)~ 14(일)
13(토) 16:00, 19:30
14(일) 15:00, 18:30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티켓가격 R석 40,000원 / S석 35,000원
예매 시 10%할인(연당 유류회원 15%할인)
초, 중, 고, 대학생 20%할인(문인만 해당)
장애인 50%할인(4~6급 동반 1인까지, 4~6급 본인만 해당)
※ 당일 티켓추경 시 학생증 및 복지카드 제시, 타인 영도 불가
단체 20명이상 예매 시 25%할인, 50명이상 예매 시 30%할인

관람대상 7세 이상

공연문의 1599-4669

공연
정보

공연일시 2010년 11월 4일(목) 19:30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티켓가격 무료

후원 경기문화재단

공연문의 경기도문화의전당 www.ggac.or.kr
010-2253-0402

GGAC NEWS

경기에술멘토프로그램 발표회

일시 2010년 11월 20일(토) 14:00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경기에술교육멘토프로그램 2010년도 발표회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현재 84개 시설에서 104강좌로 1,419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멘토프로그램은 문화적 수혜가 열악한 경기북부 공부방 멘티들을 중심으로 발표회를 실시한다. 발표내용은 사물놀이, 한국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예능적 소질이 무한한 꿈나무들의 큰 잔치가 될 예정이다. **◆ 글 | 정화섭** (예술단지원팀)

경기도국악당 제8회 가족음악회 (전통예술교육강좌 수강생 발표 공연)

일시 2010년 11월 27일(토) ~ 28일(일) 15:00

장소 경기도국악당

경기도국악당에서 전통예술교육강좌 수강생들의 흥겨운 음악축제가 열린다. 경기도국악당은 2004년 개관한 직후부터 경기도민의 전통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해왔다.

현재 총 38개 강좌에 550여 명의 수강생들이 가야금, 해금, 민요, 사물, 대금, 한국무용 등 우리 악기와 소리를 배우면서 국악 사랑을 키우고 있다.

이번 가족음악회는 300여 명의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국악당 무대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다. 유아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지한 자세로 마음을 모아 연주 하고 관람하는 가족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축하한다.

고사리 같은 손과 해맑은 표정으로 우리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 음악의 미래이다.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으로 국악당 무대를 압도하는 어른들의 연주 또한 우리 음악이 지닌 저력을 실감하게 한다.

이른 아침부터 공연을 위한 리허설과 준비를 하고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지도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는 열성이 국악당을 뜨겁게 달군다. 뿐만 아니라 국악당의 가족음악회는 문화예술이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임을 새삼 실감케 할 것이다. **◆ 글 | 권일**(경기도국악당)



GGAC 오시는 길

경기도문화의전당



지하철 수원역 하차 후 시내버스 (20분 소요)나 택시 (10분 소요) 이용

버 스 <출발지> **수원역 4번 출구** : 92, 92-1, 83, 83-1, 82, 82-1, 15, 51
서울 사당 7000 (수원법원 하차/ 83-1, 82-1) / 7001 (전당 하차)
강남 3001 (수원법원/83-1, 82-1) / 3007 (전당 하차)
잠실 1007 (수원법원 하차/83-1, 82-1)
<도착지> 경기도문화의전당 후문 하차 : 92 갤러리아/경인일보 앞 하차 : 15, 51, 52, 82, 82-1, 83, 83-1
외환은행 앞 하차(도보 5분) : 15, 92, 92-1

자가용 **동수원 톨게이트** → 광주수지방향 → 주유소 끼고 우회전 → 월드컵경기장 방향 → 시청방향으로 계속 직진 → 고가도로를 지나 갤러리아 사거리 좌회전 → 좌측 경기도문화의전당 도착
북수원 톨게이트 → 동수원사거리에서 직진 → 시청사거리에서 시청방향으로 좌회전 →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에서 직진→ 수원톨게이트 → 수원방향으로 좌회전 → 법원사거리에서 좌회전 → 경기도문화의전당 후문도착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당



자가용 **고속도로 이용** 수원, 신갈톨게이트로 나와 우회전 용인방향으로 진행, 신갈오거리서

한국민속촌 방향으로 우회전 후 2km정도 오면 됩니다.
국도이용 서울 → 오산간 또는 수원 → 용인간 도로를 지나 신갈오거리에 도착, 한국민속촌 방향으로 2km 정도 오면 됩니다.

